

다윗의 삶 –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

본문: 사무엘 하 6:12-15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관한 설교 시리즈 중이며,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감각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열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사무엘하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1. 하나님의 임재

2. 하나님의 약속

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무엘 하 6장 첫 부분을 저와 함께 읽어 봅시다.

[삼하6:1-5]

-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바알레-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3-14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의도는 법궤를 그곳에서 도시로 운반해 와서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즉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상 가장 신성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는 모세에게 그 설계를 주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셨고, 모든 세부 사항은 백성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약 4피트, 너비 2피트, 높이 2피트의 나무 상자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안팎에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 라고 불리는 순금 덮개가 있었는데, 두 명의 황금 케루빌, 천사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가 뻗어서 뚜껑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대제사장은 성막의 내부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희생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는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 흘렸고, 그들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었지만,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음을 가시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법궤가 어디로 가든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의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의 지점이자 그분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즉,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은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의 선적 목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계시이며, 이것이 바로 다음 내용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삼하6:6-7]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월링던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엉망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조건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의 실수 때문에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축하 도로 여행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웃사는 법궤를 만지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삼하6:8-11]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상의 평행 본문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 궤를 옮겨야 할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수레에 실어 옮겨서는 안 되었고, 그것을 쳐다보지 말았어야 했고, 확실히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다르십니다. 민수기 4장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만이 궤에 막대기를 끼워서 궤를 운반해야 했으며, 그때에도 큰 천으로 궤를 덮은 후에야 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삼하6:12-15]

12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참된 왕에 대한 경배가 그의 백성들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도시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거룩하심의 계시는 이러한 기쁨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삼하6:16]

여호와와 그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제 일반적인 오해를 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다윗이 반쯤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서 부적절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은 다윗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레위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섬길 때 입었던 단순한 제사장 옷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왕으로서 지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인 왕의 예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캔들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품위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왕의 예의를 지키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즉, 참 왕의 보좌 앞에서 모든 지상의 면류관을 벗어 놓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명성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참된 왕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왕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이 본문을 풀어 내면서,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길을 잃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내내 노력해 온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중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예수님 전까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골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법궤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데일 데이비스라는 성경학자가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은 육신이 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지 정확히 계시합니다.

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화해**의 장소였으며,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일 년에 한 번씩 흠 없는 희생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의식적 희생을 넘어서셨습니다. 우리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피를 성소로 가져왔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져와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의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원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그분이 그의 백성 가운데 계셨던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그는 모든 권세로 통치하시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왕국을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계시, 화해, 통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모든 것이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법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진정 누구신지를 보게 되면 무관심한 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갈망을 성취, 관계, 혹은 심지어 종교적 성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 들어보세요: 그중 어느 것도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과 웃사,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즉 하나님의 임재에 영원히 들어가는 길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갈망이 답변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것에 의해서입니다. 복음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행복과 경배와 기쁨을 요구합니다.

윌링던 교인 여러분, 그분의 임재에 마지막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2.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며,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삼하7:1-3]

-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
- 3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고, 그의 선지자 친구 나단은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와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개입하십니다.

[삼하7:4-7]

- 4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 하겠느냐
-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 7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글을 볼 때,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소문자 g인 신- 유일신이 아닌 우상 신 -을 위해 웅장한 사원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전은 왕이 헌신적이며 신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영구적이고 영광스러운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그 신은 가까이 머물면서 왕의 왕좌를 강화하며 왕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왕실 사원 건축은 기본적으로 왕이 "내가 집으로 내 신을 공경하면 그는 승리와 번영과 영속적인 왕조로 나를 공경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치적, 영적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 제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삼하7:8-11]

-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다윗을 들판에서 목자의 삶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골리앗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전투에서 다윗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곳에 거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에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육체적인 집,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지만,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 왕조의 가정, 그의 은혜로 세워진 왕의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면 다윗이 모든 계획을 시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나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이 건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건축하실 때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하7:12-16]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왕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궁전이라고 합니다. 신이 집을 가질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약속과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실 때, 그것을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돌 성전을 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다윗의 지상 왕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0년 후의 예수님, 참 다윗의 아들이시며, 그의 보좌와 왕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인 분을 가리킵니다.

[눅1:32-33]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이 약속의 최종 성취이시며, 한 나라를 한동안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언어와 나라, 모든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의 왕좌는 결코 빼앗길 수 없고, 그의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맹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력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그는 힘으로 그것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그것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는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그것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보좌는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얻어졌으며,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약속과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육체적인 집인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기 후에:

[요2:19-22]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해, 예수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신 임재이십니다. 성전이 의도된 모든 것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루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전3:16-17]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이시나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거나 왕조가 몇 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실 것이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복음의 논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왕조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왕이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한 번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의 임재가 닿지 않는 창조의 한구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만으로는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편재성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경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신학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자신을 알리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통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행하시는 끊임없는 현존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불러와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 살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먼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살아 있는 친구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를 아는 경험으로 살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일깨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바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축하하는 것입니다.